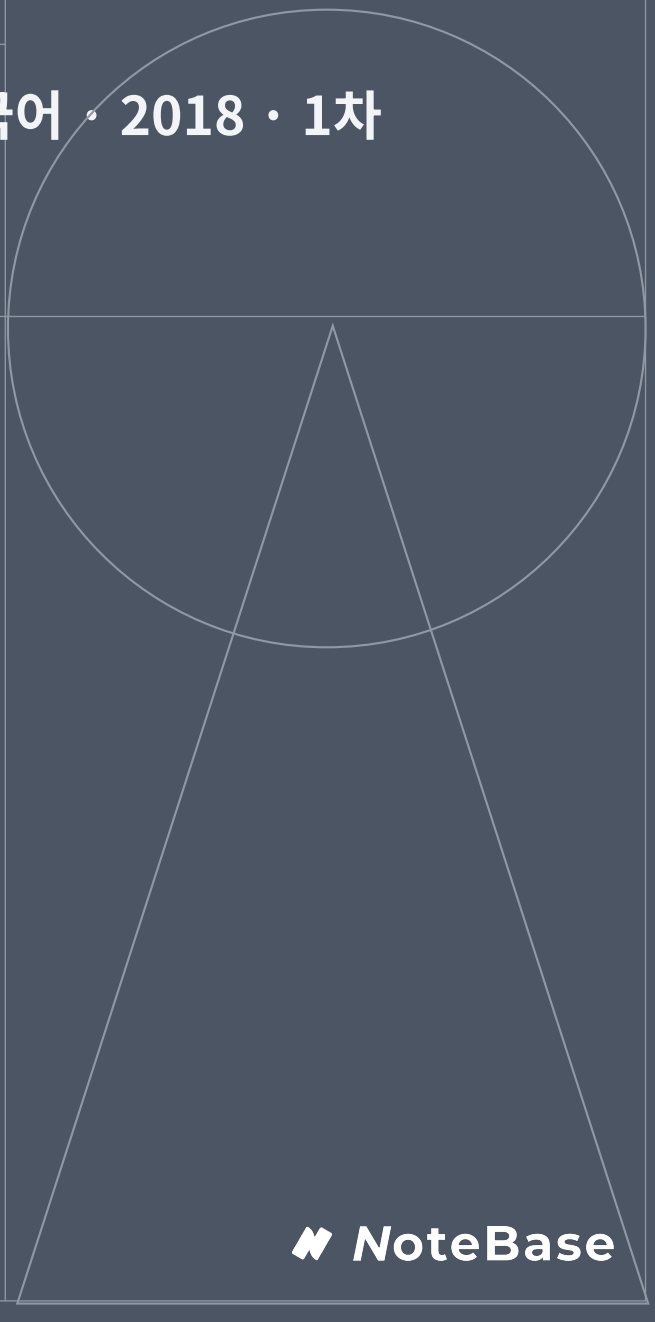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1차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8 · 1차**

**문 1.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②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③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④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분절 음운의 종류와 국어 장단의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분절 음운은 자음·모음처럼 소리의 경계를 나누어 표시하기 어렵지만, 분절 음운에 덧붙어 뜻이나 말의 태도를 구별하는 소리 요소이다. 국어의 대표적인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인 장단과 말의 높낮이 흐름인 억양이 있다. 국어의 장단은 모음의 길이에 관한 것이며 자음의 길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인 장단과 말의 높낮이인 억양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이다. 국어의 장단은 모음의 길이 차이에 해당하며, 올바르게는 '장단의 문제는 모음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비분절 음운은 자음·모음처럼 독립된 소리마디의 경계를 긋기 어렵지만, 장단이나 억양의 차이로 의미를 변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O — 국어의 긴소리는 원칙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실현되며, 원래 긴소리인 모음도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비분절 음운이 말소리 전체에 얹힌다’는 사실을 ‘장단이 자음과 모음 모두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②의 ‘자음 모두’가 함정이며, 국어의 장단은 모음의 길이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단을 묻는 선지에서는 무엇의 길이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국어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자음까지 장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면 틀린 설명이다.

**암기 포인트**

비분절 음운은 장단·억양, 장단은 모음의 길이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당신은 누구시오?
㉡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① ㉠에서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② ㉡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③ ㉢에서 '당신'은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④ ㉣에서 '당신'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대명사 '당신'의 인칭과 높임·낮춤의 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며,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편을 높여 이르기도 하고 다툴 때에는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기도 한다. 또한 앞에서 이미 말한 사람을 높여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로도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당신'은 '누구시오?'라는 물음을 듣는 청자를 직접 가리키므로 2인칭 대명사이다.
② O — ㉡은 부부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있으며, '당신'은 배우자인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③ O — ㉢의 '누구한테 당신이야!'는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2인칭 대명사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의 '당신'은 화자의 상대방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할아버지'를 높여 가리키므로, 올바르게는 '앞에서 이미 말한 사람을 높여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오답 포인트**

'당신'이 흔히 듣는 이를 가리킨다는 점만 떠올리면 ㉣도 2인칭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장서'에서 '당신'의 지시 대상은 이미 언급된 할아버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신'이 대화 상대를 직접 가리키면 2인칭으로 판단하고, 앞에서 언급된 인물을 다시 높여 가리키면 3인칭으로 판단한다. 2인칭일 때에는 부부 사이의 높임인지 다툼 상황의 낮춤인지도 문맥으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당신은 상대를 가리키면 2인칭, 앞서 나온 사람을 높여 가리키면 3인칭이다.

NoteBase

**문 3.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처럼 구(句)로 보아야 한다.

② 접사와 어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合成語)라 한다.

③ '앞뒤, 손수건, 춘추(春秋)'와 같이 어근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등 합성어라 한다.

④ '덮밥, 부슬비, 높푸르다'와 같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단어와 구, 합성어와 파생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어는 자립해서 쓰이거나 다른 말에 붙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말이고,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문법 단위이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게 결합한 말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어근 등이 직접 결합한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을 모두 구로 본 부분이 틀렸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이다.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은 '우리'와 뒤의 명사가 각각 독립된 단어로 쓰인 구이다.

② X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이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가 합성어이다.

③ X
'손수건'을 대등 합성어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앞뒤'와 '춘추'는 두 어근의 관계가 대등하지만, '손수건'은 손을 닦는 수건이라는 뜻으로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이다.

④ O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명사와 결합하고, '부슬비'는 부사 '부슬'이 명사와 직접 결합하며, '높푸르다'는 두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다. 모두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결합을 보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우리’가 붙었다는 겉모양만으로 단어와 구를 같게 보거나, 접사가 포함된 파생어를 합성어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여러 어근이 결합했다고 해서 모두 대등 합성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결합 요소가 어근끼리인지, 어근과 접사인지 확인한다. 어근끼리이면 합성어,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면 파생어이다. 합성어는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와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지를 차례로 살핀다.

**암기 포인트**

어근+어근은 합성어, 어근+접사는 파생어이다. ‘덮밥·부슬비·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밑줄 친 성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영선이가 참 아름답다.
㉡ 과연 영선이는 똑똑하구나.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그러나 영선이는 역경을 이겨냈다.

①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
②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③ ㉢과 ㉣의 밑줄 친 부분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어이다.
④ ㉠부터 ㉣까지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부사어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사어를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구분하고,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사어는 문장에서 용언이나 다른 말,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성분 부사어는 문장 안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접속 부사어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는 문장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부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참'은 '아름답다'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성분 부사어이지만, ㉡의 '과연'은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틀린 표현은 '㉠과 ㉡ … 성분 부사어'이며, 올바르게는 '㉠은 성분 부사어이고 ㉡은 문장 부사어이다'이다.
② X — ㉡의 '과연'은 문장 부사어이지만, ㉢의 '엄마와'는 '닮았다'가 요구하는 상대를 나타내는 성분 부사어이자 필수적 부사어이다. 틀린 표현은 '㉡과 ㉢ … 문장 부사어'이며, 올바르게는 '㉡은 문장 부사어이고 ㉢은 성분 부사어이다'이다.
③ X — ㉣의 '그러나'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어이지만, ㉢의 '엄마와'는 '닮았다'의 상대를 나타낼 뿐 앞뒤를 연결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과 ㉣ … 접속 부사어'이며, 올바르게는 '㉣만 접속 부사어이고 ㉢은 성분 부사어이다'이다.
④ O — ㉠ '참', ㉡ '과연', ㉢ '엄마와', ㉣ '그러나'는 종류와 구성 방식은 다르지만 문장에서 모두 부사어로 기능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엄마와'가 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사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다. '부사'는 품사이고 '부사어'는 문장 성분이므로, 체언 '엄마'에 부사격 조사 '와'가 붙은 '엄마와'도 부사어가 된다. 또한 '과연'과 '그러나'는 모두 문장 전체에 관여하지만, '그러나'만 앞뒤 문장을 잇는 접속 부사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친 말이 문장에서 무엇을 꾸미는지 확인한다. 특정 용언이나 성분을 꾸미면 성분 부사어,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며 문장 전체를 꾸미면 문장 부사어, 앞뒤 문장을 이어 주면 접속 부사어로 판단한다. 품사가 부사가 아니어도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참=성분, 과연=문장, 엄마와=필수적 성분, 그러나=접속이며, 네 표현은 모두 부사어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개재(介在)되었다.

② 경치가 좋은 곳을 관광지로 계발(啓發)하려 한다.

③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경신(更新)이 계속되고 있다.

④ 그 회사는 어음을 결재(決裁)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나 형태가 비슷한 한자어의 정확한 뜻과 문맥상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게재(揭載)는 글이나 그림을 신문·잡지 등에 싣는 것이고, 개재(介在)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개발(開發)은 토지·자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계발(啓發)은 지능·재능·사상 등을 깨우쳐 발전시키는 것이다.
경신(更新)은 기록이나 수치 등을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결제(決濟)는 대금이나 어음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내는 것이고, 결재(決裁)는 상급자가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논문을 학회지에 싣는다는 뜻이므로 '개재(介在)'가 아니라 '게재(揭載)'가 맞다. 올바르게는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게재되었다.'이다.
② X — 경치 좋은 곳을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뜻이므로 '계발(啓發)'이 아니라 '개발(開發)'이 맞다. 올바르게는 '경치가 좋은 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려 한다.'이다.
③ O — 최대 전력 수요가 종전의 최고치를 넘어 새 기록을 세운다는 뜻이므로 '경신(更新)'의 쓰임이 적절하다.
④ X — 어음을 처리하여 거래 관계를 끝낸다는 뜻이므로 '결재(決裁)'가 아니라 '결제(決濟)'가 맞다. 올바르게는 '그 회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개재/게재', '계발/개발', '결재/결제'는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다. 특히 결재는 승인, 결제는 대금·어음 처리라는 대상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를 한자 뜻과 결합 대상에 대입한다. 글은 게재, 토지·관광지는 개발, 최고 기록·수치는 경신, 상급자의 승인은 결재, 대금·어음은 결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글은 게재, 장소는 개발, 기록은 경신, 승인은 결재, 돈과 어음은 결제이다.

NoteBase

**문 6.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팔았다.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

① ㉠은 '용감한'이 '그'를 꾸미는지, '그의 아버지'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② ㉡은 '어머니가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인지 불분명하다.
③ ㉢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불분명하다.
④ ㉣은 '철이'가 '영선'이와 결혼했다는 의미로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나의 문장이 수식 관계, 관형격의 의미 관계, 문장 성분의 역할, 공동 행위의 해석에 따라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의적 문장은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수식 범위가 달라지거나, '의'가 나타내는 관계가 달라지거나, 주어·목적어의 역할 또는 복수 주체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용감한'을 '그의 아버지'에 연결하면 아버지가 용감하다는 뜻이고, '그'에 연결하면 용감한 사람인 그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수식 범위가 두 가지로 잡히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관형격 조사 '의'는 행위의 주체, 대상, 소유주 등 여러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초상화'는 어머니가 그린 초상화,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 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③ O
'선생님이'를 '보고 싶다'의 주체로 보면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고, 보고 싶은 대상으로 보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다. 문장 성분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이다.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올바르게는 '철이'와 '영선이'의 결혼 상대가 서로인지 각각 다른 사람인지 불분명한 중의적 문장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와'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가 결혼 상대인 것은 아니다. 복수 주체가 한 행위를 함께 했다는 해석과 각자 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식어가 어디까지 꾸미는지, '의'가 어떤 의미 관계인지, 같은 조사가 서로 다른 문장 성분을 나타낼 수 있는지, 복수 주체의 행위가 공동인지 개별인지 차례로 확인한다. 두 가지 이상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성립하면 중의적 문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의성의 핵심은 수식 범위, '의'의 관계, 문장 성분의 역할, 공동·개별 해석이다.

NoteBase

**문 7. 다음 띄어쓰기 규정의 '원칙'에 맞게 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희망의∨불씨가∨꺼져간다.

② 한국대학교∨사범대학∨최치원∨교수

③ 이천십팔∨년∨삼∨월∨이십사∨일∨제일∨차∨공무원∨시험

④ 제발∨여기에서만이라도∨집에서∨처럼∨못∨되게∨굴지∨않았으면∨좋겠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띄어쓰기의 원칙과 붙여 쓰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허용 표기가 있더라도 문제에서 '원칙'을 물으면 원칙적인 띄어쓰기를 골라야 한다.

**핵심 개념**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수와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꺼져간다'에서 '가다'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 간다.'로 고친다.
② X — '한국대학교'와 '사범대학'은 고유 명사를 단위별로 붙여 쓴 허용 표기이지 원칙 표기가 아니다. 원칙에 따르면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최치원 교수'로 쓴다. 성명 '최치원'은 붙여 쓰고 호칭어 '교수'는 띄어 쓴다.
③ O — '이천십팔 년 삼 월 이십사 일 제일 차 공무원 시험'은 수와 단위 명사인 '년, 월, 일, 차'를 띄어 쓴 원칙 표기이다.
④ X — '처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집에서처럼'으로 써야 한다. 또한 여기의 '못되다'는 성질이나 품행이 좋지 않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못되게'로 붙여 쓴다. 따라서 '제발 여기에서만이라도 집에서처럼 못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붙여 쓰는 형태도 허용되므로 일상적으로는 맞는 표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항은 허용 표기가 아니라 '원칙'을 묻고 있으므로 ①은 '꺼져 간다', ②는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④에서는 조사 '처럼'과 한 단어인 '못되다'를 각각 잘못 띄어 쓴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항이 원칙 표기를 묻는지 허용 표기까지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보조 용언은 띄어 쓰고,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며, 수와 단위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인다는 기준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원칙은 보조 용언 띄기·고유 명사 단어별 띄기·수와 단위 명사 띄기·조사 붙이기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수캉아지 - 수탕나귀 - 수평아리

② 황소 - 장끼 - 돐(생일)

③ 삵괭이 - 사글세 - 끄나불

④ 깡충깡충 - 오뚝이 - 아지랑이

**정답 1, 4번**

**출제 포인트**

각 묶음의 모든 단어가 표준어인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한 단어라도 비표준어가 섞여 있으면 그 선지 전체가 틀린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수컷을 나타내는 '수-'가 결합한 말의 거센소리 표기와, 널리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사례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캉아지', '수탕나귀', '수평아리'는 모두 표준어이다. 이 말들은 '수-' 뒤의 소리가 거세게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에 해당한다.
② X — '황소'와 '장끼'는 표준어이지만 '돐'은 비표준어이다. 틀린 표현 '돐(생일)'은 '돌(생일)'로 고쳐야 한다. 생일과 주기를 구별하여 쓰던 '돐'은 버리고 '돌' 하나를 표준어로 삼는다.
③ X — '사글세'는 표준어이지만 '삵괭이'와 '끄나불'은 비표준어이다. '삵괭이'는 '살쾡이'로, '끄나불'은 '끄나풀'로 고쳐야 한다.
④ O — '깡충깡충', '오뚝이', '아지랑이'는 모두 널리 굳어진 형태로 인정되는 표준어이다.

**오답 포인트**

어원이나 모음 조화에 더 가까워 보이는 형태가 언제나 표준어인 것은 아니다. 특히 '돐', '삵괭이', '끄나불'처럼 익숙하거나 원형에 가까워 보이는 표기에 끌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를 단어별로 분해해 표준어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다.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는 경우에는 비표준어가 하나라도 발견되는 즉시 그 선지를 X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캉아지·수탕나귀·수평아리, 깡충깡충·오뚝이·아지랑이는 표준어이다. 돐→돌, 삵괭이→살쾡이, 끄나불→끄나풀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9.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너를….” 하고 뒤돌아섰다.

② 그녀의 50세 나이(年歲)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

③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④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줄임표, 소괄호·대괄호, 줄표, 겹화살괄호가 각각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줄임표는 할 말을 줄이거나 머뭇거림 등을 나타내고, 줄임표로 문장이 끝나면 뒤에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소괄호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처럼 앞말과 소리가 같은 표기를 덧붙일 때 쓰고, 대괄호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나 외국어처럼 앞말과 소리가 다른 말을 덧붙일 때 쓴다. 줄표는 제목에 딸린 부제를 나타내며, 겹화살괄호는 책이나 신문 같은 저작물의 제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나는 너를….’은 미처 다 하지 않은 말을 줄임표로 나타낸 것이다. 줄임표를 세 점으로 쓰는 것도 허용되며, 이 줄임표로 인용 문장이 끝나므로 뒤에 마침표를 쓴 것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고유어 ‘나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年歲’를 소괄호로 묶은 ‘나이(年歲)’이다. 앞말과 소리가 다른 대응 한자어를 덧붙일 때는 대괄호를 쓰므로 ‘나이[年歲]’로 고쳐야 한다.
③ O — ‘숲 가꾸기’는 ‘환경 보호’라는 제목에 딸린 부제이므로 부제의 앞뒤에 줄표를 쓴 것이 적절하다. 줄표의 앞뒤를 띄어 쓴 것도 원칙에 맞는다.
④ O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시집, 즉 책의 제목이므로 겹화살괄호로 묶은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한자를 덧붙였다는 점만 보고 소괄호를 선택하기 쉽다. 괄호의 종류는 한자 여부만이 아니라 앞말과 덧붙인 말의 소리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처럼 음이 같으면 소괄호를 쓰지만, ‘나이[年歲]’처럼 고유어와 대응 한자어의 음이 다르면 대괄호를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문제에서는 앞말과 괄호 안 말의 발음을 먼저 비교한다. 같은 말의 원어·한자 표기로서 소리가 같으면 소괄호, 뜻이 대응하지만 소리가 다르면 대괄호로 판단한다. 제목 문제에서는 책·신문 등은 겹화살괄호, 작품·논문 등은 홑화살괄호, 제목에 딸린 부제는 줄표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같은 소리의 원어는 ( ), 다른 소리의 대응어는 [ ], 책 제목은 《 》, 부제는 줄표이다.

NoteBase

**문 10.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압구정 - ‘Apgujeong’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속리산 - ‘Songni-san’ -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등은 붙임표를 붙여 쓴다.

③ 한복남 - ‘Han Bongnam’ -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④ 집현전 - ‘Jipyeonjeon’ -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음운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예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붙임표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명은 성과 이름을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며,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연 지물명·국가유산명·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또한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이어지면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ㅎ’을 밝혀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압구정’은 발음이 [압꾸정]이지만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Apgujeong’으로 적는다. 표기와 설명이 모두 맞다.
② X — 틀린 표현은 ‘Songni-san’과 ‘붙임표를 붙여 쓴다’이다. 자연 지물명인 ‘속리산’은 붙임표 없이 ‘Songnisan’으로 붙여 쓴다.
③ X — 틀린 표현은 ‘Han Bongnam’과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이다.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복남’은 ‘Han Boknam’으로 적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Jipyeonjeon’이다. 체언인 ‘집현전’에서는 ‘ㅂ’ 뒤의 ‘ㅎ’을 밝혀 ‘Jiphyeonjeon’으로 적는다. ‘ㄱ, ㄷ, ㅂ, ㅈ’과 ‘ㅎ’이 합쳐져 나는 거센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는 일반 원칙을 이 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표준 발음대로 적는다는 대원칙만 적용하면 ①의 된소리되기와 ④의 체언 예외를 놓치기 쉽다. 또한 ②는 지명에 붙임표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③은 일반적인 음운 변화 반영 원칙을 인명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된 로마자 표기가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이 그 표기의 실제 근거인지 따로 판단한다. 된소리되기, 인명, 자연 지물명, 체언의 자음 뒤 'ㅎ'은 각각 별도의 예외 규칙으로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압구정은 Apgujeong, 속리산은 Songnisan, 한복남은 Han Boknam, 집현전은 Jiphyeonjeon이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6㉠과장 양반춤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① ㉠: 현대 연극의 '막'과 유사하지만 각 '과장'은 독립적이다.

② ㉡: 양반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③ ㉢: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④ ㉣: 말뚝이를 통해 유발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탈춤의 과장 구성, 양반 희화화, 언어유희, 갈등 전개가 제시된 장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장은 탈춤을 이루는 하나의 장면 단위로, 현대 연극의 막과 비슷하면서도 각 과장이 독립적인 내용과 구조를 지닌다. 이 장면에서는 말뚝이가 양반의 외모와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고, 말장난으로 양반을 조롱한다. 양반들이 말뚝이의 둘러대기를 받아들이고 다시 춤을 추지만, 이는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잠시 무마된 것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의 '과장'은 현대 연극의 '막'과 유사한 장면 단위이며, 각 과장은 독립된 내용과 구조를 지닌다.
② O — 양반들이 점잔을 피우면서도 어색하게 춤추고, 도련님이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구는 모습은 양반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한다.
③ O — '개잘량이라는 양'과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은 '양반'을 엉뚱한 말로 풀어내는 언어유희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대목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이다. 양반들은 말뚝이의 조롱에 화를 내지만 말뚝이가 칭찬처럼 둘러대자 다시 춤을 출 뿐이며, 말뚝이와 양반 사이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무마되었을 뿐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말뚝이로 인해 생긴 갈등이 일시적으로 무마되었다'이다.

### 오답 포인트

㉣에서 모두 다시 춤을 추는 행동을 갈등의 완전한 해결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말뚝이의 조롱과 양반의 항의라는 대립 관계는 그대로이며, 말뚝이의 재치 있는 둘러대기로 그 순간만 넘어간 것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면 끝에 인물들이 웃거나 춤을 다시 춘다는 사실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이 사라졌는지, 대립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탈춤의 과장은 독립적이고, 양반은 희화화·언어유희로 풍자되며, 춤의 재개는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 무마이다.

NoteBase

**문 12.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6㉠과장 양반춤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① 경상도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면극의 일종이다.
②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의 재담 구조를 보인다.
③ 등장인물은 공연 상황에 따라 대사를 바꾸어 표현하지 못한다.
④ 말뚝이는 무능한 지배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봉산탈춤」 양반춤 과장의 지역적 배경, 재담 구조, 공연 방식, 인물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된 가면극이다. 양반춤 과장에서는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을 높이는 듯하면서 말장난과 중의적 표현으로 양반의 허위와 무능을 조롱한다. 민속극은 공연 상황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대사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방성과 즉흥성을 지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경상도 안동 지방'이다.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전승된 「봉산탈춤」이다. 경상도 안동 지방의 대표적인 가면극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이다.
② O — 말뚝이가 양반의 등장과 위엄을 내세우는 듯하다가 '개잘량', '개다리소반'이라는 말장난으로 조롱하고, 양반들이 호통치자 잘못 들었다는 듯 변명한다. 양반들은 그 변명을 믿고 안심하여 다시 춤을 추므로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 구조가 나타난다.
③ X — 틀린 부분은 '대사를 바꾸어 표현하지 못한다'이다. 민속극의 등장인물은 공연 상황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대사를 유동적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말뚝이는 무능한 지배 계층을 대변한다'이다. 말뚝이는 서민층을 대변하며, 무능하고 허위적인 지배 계층인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봉산탈춤」과 안동의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바꾸어 놓았다. ③은 민속극의 즉흥성과 개방성을 부정했고, ④는 풍자의 주체인 말뚝이와 풍자의 대상인 양반을 뒤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지역과 갈래를 먼저 확인한 뒤, 대사의 표면적 의미와 실제 의도를 구분한다. 이어 누가 조롱하는 인물이고 누가 조롱받는 대상인지, 공연 상황에 따른 대사 변화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 말뚝이는 서민의 대변자, 양반은 풍자의 대상이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德(덕)으란 곰ᄇᆡ 예 받ᄌᆞ고ᄇᆞᆸ
福(복)으란 림ᄇᆡ 예 받ᄌᆞ고ᄇᆞᆸ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ᄂᆞ ᄂᆞᄅᆞ
㉠나ᅀᆞ라 오소ᄋᆞ 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논ᄃᆞ ᄂᆡ
누릿 가온ᄃᆞ ᄂᆞᆷ곤
㉡몸하 ᄒᆞ올로 녈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ㅅ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ᅀᆞ 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ᄒᆞ
아으 滿春(만춘) ㉣ᄃᆞ욋곶지여
ᄂᆞᄆᆞᄉᆞᄇᆞ롤 즈ᅀᆞ ᄂᆞᄅᆞ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① ㉠: '나중에 오십시오.'라는 뜻이다.

② ㉡: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

③ ㉢: 2월의 세시 풍속인 '연등제'와 관계된다.

④ ㉣: 임의 수려한 외모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려 가요 「동동」의 고어 표현과 각 월령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세시 풍속·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동」은 달마다 달라지는 계절과 풍속을 배경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월령체 고려 가요이다. 서사의 ㉠은 시간상 '나중'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아오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나중에 오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다. '나중에'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나아오십시오' 또는 '나아오소서'라는 뜻이다.
② O —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가 녹으며 흐르지만 화자는 세상에 나서 홀로 살아간다고 한다. ㉡은 임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
③ O — 이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을 노래한 ㉢은 등을 밝혀 복을 빌던 연등회, 즉 연등제의 풍속과 관계된다.
④ O — ㉣의 '만춘의 진달래꽃'은 늦봄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임을 빗댄 표현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빼어난 임의 외모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고어를 현대어 '나중'과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아니라 상대가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는 현대어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뜻을 정하지 않고 앞뒤 문맥과 문장 기능을 함께 본다. 월령 부분은 각 달의 계절·풍속과 그에 기대어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를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은 '나중에'가 아니라 '나아오십시오', 정월은 고독, 이월은 연등회, 삼월의 진달래꽃은 아름다운 임이다.

NoteBase

**문 14.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德(덕)으란 곰ㅂ 예 받ᄌ 고ㅂ
福(복)으란 림ㅂ 예 받ᄌ 고ㅂ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ㄴ ᄂᆞ ㄹ
㉠나ᅀᅡ 라 오소ᄋᆞ 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 논ᄃᆞ ᄂᆡ
누릿 가온ᄃᆞ ᄂᆞᆷ곤
㉡몸하 ᄒᆞ 올로 녈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ㅅ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ᄌᆞᅀᅡ 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ᄒᆞ
아으 滿春(만춘) ㉣ᄃᆞ 욋곶지여
ᄂᆞᄆᆞ ᄂᆞᆷ 보롤 ᄌᆞᅀᅡ ᄂᆞᄅᆞ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①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월령체 형식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②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장가사』에 전한다.

③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켰다.

④ 1연은 서사(序詞)로서 송축(頌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가요 「동동」의 월령체 형식, 전승 문헌, 후렴구, 서사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동」은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정월부터 십이월까지의 세시 풍속과 계절 변화에 따라 노래한 월령체 고려 가요이다. 작품은 조선 시대 문헌인 『악학궤범』에 가사가 전하며, 각 연에는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동동」은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정서를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달의 순서에 따라 펼치는 월령체 고려 가요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악장가사』에 전한다'이다. 「동동」의 가사는 조선 시대의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전한다. 따라서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학궤범』에 전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각 연에 반복되어 연을 나누고 리듬감과 음악적 흥취를 높인다.
④ O — 1연은 덕과 복을 송축하는 서사로, 뒤이어 전개되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 연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은 부분으로 추정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고려 가요가 실린 문헌인 『악장가사』와 『악학궤범』을 바꾸어 제시한 데 있다. 「동동」의 수록 문헌은 『악학궤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반복 후렴과 달의 순서를 보고 「동동」을 확인한 뒤, '월령체·아으 동동다리·『악학궤범』·1연의 송축적 서사'를 한 묶음으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동동」은 월령체, '아으 동동다리', 『악학궤범』, 1연의 송축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① ㉠: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이다.

② ㉡: '눈', '나타샤' 등과 함께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한다.

③ ㉢: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이다.

④ ㉣: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대상과 공간이 화자의 현실 인식 및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이 시에서 현실은 가난과 외로움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이상은 사랑하는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산골'이다. '소주'는 외로움을 달래는 현실적 수단이며, '흰 당나귀'는 나타샤와 산골로 향하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매개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화자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므로, ㉠ '소주'는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 '흰 당나귀'가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한다는 부분이다. 흰 당나귀는 나타샤와 함께 산골로 가려는 화자의 낭만적 상상과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③ O — ㉢ '산골'은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마가리에 살고 싶어 하는 곳이므로, 현실을 벗어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④ O — 화자는 ㉣ '세상'을 '더러워 버리는' 대상으로 표현하므로, 세상은 화자가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현실 공간이다.

**오답 포인트**

'눈'이 내리는 쓸쓸한 현실 장면에 '흰 당나귀'가 함께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현실적 괴로움의 상징이라고 묶기 쉽다. 그러나 흰 당나귀는 나타샤와 산골로 이동하는 상상 속 대상이므로 이상과 낭만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가 놓인 장면과 화자의 태도를 함께 확인한다. 화자가 거부하거나 견디는 대상은 현실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향하거나 머물고 싶어 하는 대상은 이상 세계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소주는 외로움의 위안, 흰 당나귀는 이상으로 향하는 매개, 산골은 이상 공간, 세상은 거부할 현실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뒈져 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돌려다 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未久)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뒈져라! 움도 싹도 없이 스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① 1922년 『신생활』에 발표될 당시 작품 제목은 「묘지(墓地)」였다.

② 주인공이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여로형 소설이다.

③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현실 개선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염상섭의 「만세전」에 나타난 발표 이력, 여로형 구성, 서술 시점, 주제 의식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과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NoteBase

### 핵심 개념

「만세전」은 주인공인 '나'의 귀국과 귀환 여정을 따라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여로형 소설이다. '나'가 작품 속 인물로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서술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이 작품은 1922년 잡지 『신생활』에 처음 발표될 때 「묘지」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② O — 주인공은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간다. 이동 경로를 따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관찰하는 여로형 구성을 취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이다.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며 내면의 분노와 냉소, 비판적 인식을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④ O — 주인공은 식민지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비판하지만 이를 바꾸려는 적극적 실천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이는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준다.

### 오답 포인트

③은 작품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특징을 '객관적 서술'과 혼동하게 만든다. 제시문에는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처럼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이 직접 제시되므로 객관적 전달이라고 할 수 없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시점은 누가 말하는지와 인물의 내면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품 속 '나'가 자신의 경험과 내면을 직접 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서술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 암기 포인트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도쿄에서 서울을 거쳐 다시 도쿄로, 서술은 '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NoteBase

**문 17. 이 작품의 주제를 한자 성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① 興盡悲來
② 捲土重來
③ 愚公移山
④ 渴而穿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글은 잘못이나 폐단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제때 고쳐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핵심 개념**

渴而穿井(갈이천정)은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일이 급해진 뒤에 뒤늦게 대비하거나 손을 쓰면 이미 늦는다는 말이다. 비가 샌 집을 곧 수리하지 않아 재목이 썩고 비용이 커진 일과, 폐단을 미루어 고치면 백성과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글의 교훈에 들어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興盡悲來(흥진비래)는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뜻이다. 흥망이나 즐거움과 슬픔의 교체가 아니라 잘못을 제때 고쳐야 한다는 글이므로 맞지 않는다. 이 글의 주제에 맞게 고치면 渴而穿井(갈이천정)이다.
② X — 捲土重來(권토중래)는 한 번 실패한 뒤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도전한다는 뜻이다. 글의 핵심은 실패 뒤의 재도전이 아니라 잘못을 방치하여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고치는 데 있다. 이 글의 주제에 맞게 고치면 渴而穿井(갈이천정)이다.
③ X — 愚公移山(우공이산)은 한 가지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글은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보다 잘못을 미루지 않는 적시의 대응을 강조한다. 이 글의 주제에 맞게 고치면 渴而穿井(갈이천정)이다.
④ O — 渴而穿井(갈이천정)은 급해진 뒤에야 대비하면 늦는다는 뜻이다. 집의 작은 누수를 곧 수리하지 않아 큰 비용이 든 경험을 사람의 잘못과 나라의 폐단에까지 확장한 글의 주제를 정확히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글에 '다시 좋은 사람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 ②의 '다시 도전함'을 떠올리거나, 잘못을 꾸준히 고친다는 의미로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말의 핵심은 백성과 나라가 위태로워진 뒤에 변경하면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뒤늦은 대비'를 뜻하는 ④가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를 고를 때는 소재보다 글의 인과 관계를 먼저 잡는다. 이 글에서는 '작은 문제를 방치함 → 피해가 커짐 → 뒤늦게 고치기 어려움'의 흐름이므로, 일이 닥친 뒤에야 대비한다는 渴而穿井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渴而穿井은 '목마른 뒤 우물 파기', 곧 뒤늦은 대비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① ㉠: 敗亡, ㉡: 政事, ㉢: 改革
② ㉠: 敗亡, ㉡: 正使, ㉢: 開革
③ ㉠: 敗忙, ㉡: 政事, ㉢: 改革
④ ㉠: 敗忙, ㉡: 正使, ㉢: 開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고,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패망(敗亡)은 싸움이나 경쟁에서 져서 망하는 것이고, 정사(政事)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며, 개혁(改革)은 제도나 조직 등을 새롭게 고치는 일이다. 따라서 ㉠은 敗亡, ㉡은 政事, ㉢은 改革으로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敗亡은 '패하여 망함', 政事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改革은 '제도 등을 고쳐 새롭게 함'을 뜻하므로 세 표기가 모두 문맥에 맞는다.
② X — ㉠ 敗亡은 맞지만, ㉡의 正使는 '사신단의 우두머리'를 뜻하고 ㉢의 開革은 문맥상 '개혁'의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나라의 정사'는 政事, '고쳐 새롭게 함'은 改革으로 써야 한다.
③ X — ㉡ 政事와 ㉢ 改革은 맞지만, ㉠의 敗忙에서 忙은 '바쁘다'라는 뜻이다. '패하여 망함'이라는 문맥에서는 敗亡으로 써야 한다.
④ X — 敗忙의 忙, 正使, 開革의 開가 모두 문맥에 맞지 않는다. 각각 敗亡, 政事, 改革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忙과 亡은 모두 '망', 正使와 政事는 모두 '정사', 開革과 改革은 모두 '개혁'으로 읽힐 수 있어 음만 보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망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고치다'라는 문맥의 뜻이 각각 亡, 政事, 改를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친 말의 문맥상 뜻을 풀고, 각 한자의 훈이 그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같은 음의 한자가 제시되어도 '패망=敗亡, 정사=政事, 개혁=改革'처럼 단어 전체의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敗亡은 패하여 망함, 政事는 나라의 일, 改革은 고쳐서 새롭게 함이다.

NoteBase

**문 19.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念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念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이시랴 ᄒᆞ더면 가랴마ᄂᆞ 제ᄂᆞ구ᄐᆞ여
보내고 그리ᄂᆞ 情(정)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② 五百年(오백 년) 도읍지를 匹馬(필마)로 도라드니,
山川(산천)은 依舊(의구)ᄒᆞ되 人傑(인걸)은 간 ᄃᆡ 업다.
어즈버 太平烟月(태평 연월)이 ᄭᅮ야ᄆᆞᆷ가 ᄒᆞ노라.

③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ᄅᆞ 恨(한) ᄒᆞ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ᄒᆞᄂᆞ것가.
비록애 푸새엣 것신들 긔 뉘 ᄯᅡ해 낫ᄃᆞ니.

④ 三冬(삼동)에 뵈옷 닙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ᄭᅴ 뭇ᄂᆡ도 ᄯᅳᆺ죄인 업건마ᄂᆞᆫ,
西山(서산)에 ᄒᆡ지다 ᄒᆞ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인간 세상의 부귀공명과 남녀의 정욕이 모두 허망함을 깨닫는 장면이므로, 이와 같이 세속의 영화와 인간사의 덧없음을 드러낸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인생무상은 부귀, 공명, 권세와 같은 인간사의 성취가 영원하지 않고 덧없다는 인식이다. 제시문에서는 양소유로 누린 일생의 영화가 하룻밤 꿈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이 주제가 드러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임을 떠나보낸 뒤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순된 마음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다. 제시문의 핵심인 세속적 부귀영화의 허무와는 다르다. 이 선지의 주제는 인생무상이 아니라 임과의 이별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다.

② O
오백 년 도읍지의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물은 사라지고 태평한 세월도 꿈처럼 느껴진다고 하여, 고려 왕조의 흥망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한다. 현실의 부귀공명이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는 제시문의 인생무상과 가장 유사하다.

③ X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캔 백이와 숙제조차 남의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고 비판하며, 그들보다 더 철저한 절의를 드러낸다. 제시문처럼 부귀와 정욕의 허무를 깨닫는 내용이 아니다. 이 선지의 주제는 인생무상이 아니라 굳은 충절과 절의이다.

④ X
춥고 궁핍한 처지에서도 서산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눈물짓는 데에는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해가 진다'는 표현만으로 인생무상이라 볼 수 없다. 이 선지의 주제는 세속적 영화의 허무가 아니라 연군과 우국의 충정이다.

### 오답 포인트

②의 '꿈'은 옛 왕조의 영화가 사라진 허무를 나타내므로 제시문의 꿈 구조와 주제까지 이어진다. 반면 ④의 '서산에 해 지다'도 쇠락을 연상시키지만, 화자의 중심 정서는 덧없음의 깨달음이 아니라 임금과 나라를 향한 슬픔과 충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재 하나가 비슷한지만 보지 않고 화자가 끝내 도달한 인식을 비교한다. '꿈, 사라진 인물, 지난 영화'가 세속적 성취의 허무로 이어지면 인생무상이고, 이별의 그리움이나 충절과 우국으로 이어지면 다른 주제이다.

### 암기 포인트

구운몽의 각몽은 부귀공명이 한바탕 꿈이라는 인생무상이고, '오백 년 도읍지'는 왕조의 영화가 꿈처럼 사라졌다는 무상감이다.

NoteBase

**문 20.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낱 염주(念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念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① '국민 문학론'과 관련된 몽자류 소설이다.

②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 소설이다.

③ 조신 설화가 이 소설의 근원 설화이다.

④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시대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운몽」의 갈래, 환몽 구조, 근원 설화, 시대적 배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운몽」은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뒤 다시 성진으로 깨어나는 몽자류 소설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는 조선 시대이지만, 작품 속 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중국 당나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구운몽」은 우리말 문학의 가치를 중시한 김만중의 국민 문학론과 관련되는 국문 소설이자 몽자류 소설이다.
② O — 성진이 현실에서 잠들어 꿈속에서 양소유의 일생을 경험한 뒤 현실의 성진으로 돌아오므로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이룬다.
③ O — 한 인물이 꿈속에서 세속적 삶을 누리고 깨어나 그 삶의 허무를 깨닫는 「조신 설화」는 「구운몽」의 근원 설화로 본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시대'이다. 올바르게는 작품이 조선 시대에 창작되었으나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은 중국 당나라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와 작품 속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를 바꾸어 제시했다. 작가 김만중과 창작 시기는 조선 시대이지만, 양소유가 활약하는 작품 내부의 배경은 중국 당나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몽자류 소설은 꿈에 들기 전의 현실, 꿈속의 일생, 꿈에서 깨어난 현실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창작 시대와 작품 내부의 시대적·공간적 배경을 분리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구운몽」은 성진의 현실→양소유의 꿈→성진의 현실이며, 조선에서 창작되고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NoteBase